

수신 : 원장

참조 : 경영본부장, 센터소장, 동북아팀장

<중국경제동향보고 2001-08>

2001. 2. 20

KIEP 북경사무소

한·중·일 FTA 설립에 대한 중국의 입장

1. 개요

- 한·중·일 3국간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후안강(胡鞍綱) 청화대 교수가 동북아지역의 FTA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함.
- WTO 가입을 맞이하여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중국, 홍콩, 일본, 한국 등 3국 4자간 자유무역지대(FTA)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.
- FTA는 지역간 경제통합과 중국의 시장개방을 가속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임.

2. FTA 설립과 중국의 개방전략

- 중국, 홍콩과 일본,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무역파트너인바, 1999년 중국과 3국(지역)간 교역액은 1,350억 달러로 중국 전체 무역액의 37.4%에 달함.
- 또한 이들 국가(지역)은 중국의 최대 투자파트너로 1999년 이들로부터 유입된 직접투자는 206억 달러로 전체의 51.1%를 차지함.
- 최근 세계 경제는 지역간 FTA의 설립을 가속화하고 있는바 EU에 이어 2005년에는 미주 35개국, 2003년에는 아세안이 FTA를 설립할 것으로 기대됨.
- 1993-1997년간 전세계 교역에서 역내 자유무역액의 비중은 42%에 달함.

- 또한 무역자유화는 EU와 북미지역의 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증대시켰음. 1993-1999년 EU의 비중은 34.7%→38.0%, 미국의 그것은 15.7%→17.7%로 상승함.

□ 동아시아지역은 인구가 많고, 경제성장이 매우 빠르지만(일본 제외) 국제적으로 무역자유화의 속도가 느리고, 시장장벽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역내 성장 잠재력과 교역잠재력이 크게 제약받고 있음.

- 따라서 3국 4자간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은 역내 경제성장과 무역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경제의 일체화를 가속화할 수 있음.

□ 중국, 일본, 한국, 홍콩 등 3국 4자의 총인구는 세계 전체의 23.9%, GDP의 비중(PPP 기준)은 20.6%, 수출 및 수입 비중은 16.7%, 13.0%, 외환보유고는 6,148억 달러로 세계 3대 FTA로 부상할 수 있음.

□ 3국 4자간 FTA가 중국에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음.

- 제조업 인건비가 저렴하여 노동집약형 제품에서 비교우위가 있음
- 도시지역의 인적자본이 여타 개도국에 비해 높고 홍콩, 일본, 한국의 그것과도 큰 차이가 없음.
- 3국 4자간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달라 상호보완성 또는 전략적 제휴에 따른 효과가 높음.
- 3국 4자는 모두 국제적인 무역 대국이며 역내 무역·투자 비중이 높음. FTA가 설립된다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할 것임.
- 3국 4자는 이미 FTA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음.
- 홍콩은 이미 자유무역지역이며, 일본과 한국은 관세율이 매우 낮음. 중국은 명목 관세는 아직 높은 편이지만, WTO 가입이후 관세를 인하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면 실질적인 관세인하 효과는 더욱 클 것임.

□ 따라서 중국은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3국 4자간 자유무역지대 창설 건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.

- FTA는 중국의 시장경제 개혁과 개방형 경제구축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일체화로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유발할 수 있음.

3. 3국 4자간 FTA 설립의 목표

□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상정할 수 있음.

- 중국·일본·한국·홍콩 자유무역지대의 설립
- 중국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에 적극적으로 참여
- 상기 자유무역지대를 기초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설립
- 남아시아 각국을 흡수하여 동아시아·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설립
- 아시아·태평양지역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에 참여

□ 3국 4자간 자유무역지대는 WTO 규범을 기초로 상품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, 투자 자유화, 자본 자유화, 광범위한 경제와 기술, 교육, 문화의 국제협력을 포함해야 함.

- WTO의 틀에서 양자 혹은 다자간에 발생하는 무역마찰과 분쟁을 처리함.
- 사안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여 민감분야(예를 들면 농업 등)에 대한 단계적인 자유화 실시가 가능함.
- 역내 무역자유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FTA의 영역을 확대함.

4. 3국 4자간 우선 협력분야 설정

- 1) 인적자원의 개발과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국제협력
 - 역내 국가간 연구인력의 파견,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지원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주요 과학연구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을 추진함.
- 2) 에너지와 환경보호의 국제협력
 - 역내 특히 중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에너지 및 환경보호기술 협력 추진
- 3) 정보통신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시장 개방

- 한국, 일본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바 중국은 시장 개방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 또한 금융 및 통신분야에서 거래비용을 낮추고, 상호 지분참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.

4) 관광시장의 개방과 역내 관광상품의 연계 추진

5) AMF의 설립을 통한 효율적인 금융위기처리메커니즘 구축

- 금융리스크의 방지를 위해 조속히 AMF를 설립하고, IMF, 세계은행 등과 협력을 촉진함.
-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역내 상호간 주식시장 교차 진출을 장려하고 일단 역내 주식시장이 형성되면 인접 지역으로 참여국을 확대함.(***)

중국경제뉴스

1. 금년 1월 무역액 소폭 증가

- 금년 1월 중국의 교역액이 전년동기비 1.3% 증가한 324.6억 달러를 기록함.
 - 이중 수출은 0.8% 증가한 169.2억 달러, 수입은 1.9%증가한 155.4억 달러로 13.8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
- 1월 대외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.
 -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중 증가: 외자 기업의 교역액이 전년동기에 비해 4.2%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48%에서 49.4%로 늘어남.
 - EU, 동남아 및 러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: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EU(10.1%), ASIAN(10.8%), 러시아(23.0%) 이었음.
 - 기계전자제품의 수출이 10.6% 증가하였으며,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도 44%에 달함.
 - 1차산업 제품의 수입은 29.8억 달러로 4.1% 감소함. 특히 원유 수입이 370만 톤으로 17.8% 줄어듦. <國際商報 2001年15日>

2. 최근 2-3년간 중국정부의 재정정책 시행 내역과 그 효과

시간	정책 실시 및 효과
1998년 7월 ~8월	추가 발행한 1000억 원의 장기국채를 국가예산내의 기본건설분야에 투자 1998년 하반기 국유단위 고정자산투자가 19.5% 성장, 전사회고정자산 투자는 14.1% 성장
1998년 8월18일	재정부는 4대 상업은행에 대해 2700억 원규모의 30년만기 특별국채를 발행, 중국 국유은행의 자본충족률을 8% 수준으로 맞춤
1998년~1999년	기업의 준조세 부담 경감: 총 727항, 370억 원 이상의 기업부담을 줄임.
1999년 8월	600억 원의 장기국채를 고정자산투자과 기초설비 프로젝트, 일부 산업의 기술개조 및 설비의 국산화 등에 사용 1999년 2000억 원 정도의 국채프로젝트를 완수한 결과 경제성장률 7.8%중 국채투자의 기여도가 2%포인트에 달함
1999년 7월 1일	영세율을 실시한 수출상품과 농산품 외에 방직품,복장 등의 기타 수출상품의 수출세 환급률을 더욱 높인 결과 종합적인 수출세 환급률이 12.6%에서 15%로 상승 1999년 하반기이후 수출증가율이 반등함
1999년	자기자본과 은행대출을 국가가 장려하는 기술개조 프로젝트의 국산설비에 사용하면 기업의 소득세의 40%를 공제 민간투자 장려
2000년 중	500억 원의 국채 추가 발행

<中國經濟導報 2001年2月13日>

3. 인민폐 환율 강세 지속

- 인민폐의 대달러 환율이 완만히 상승, 최근 8.277원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되고 있음.
- 금년에도 중국정부가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인민폐의 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.
-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기업의 수출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인민폐 환율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
- 중국은행 산하 연구소의 王元龍박사는 최근의 외환거래에서 중앙은행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들며 중국은행이 인민폐 환율의 변동폭 완화를 시험해 보는 것으로 분석함. <2001年2月9日 工商時報>

4. 금년 자동차시장 회복 전망

- 중국 자동차시장이 지난 2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함.
 - 북경시 야원춘(亞運村) 자동차 교역장의 1월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동기비 130%, 심천시의 한 자동차판매점은 구정기간 500대 정도의 차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.
 - 금년도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개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.
 - 금년 하반기 자동차담보대출이 도입될 예정이고, 신제품의 출시도 잇따를 전망이다.
 - 자동차의 질과 가격이 점차 국제시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음.
 - 시장경쟁의 확대로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.
- <2001年2月15日 中國經濟導報>